

# 광주, 이번엔 '통학버스 도가니'

## S학교 장애 여학생 "기사가 집으로 유인 성폭행" 경찰에 고소

### 인화학교 이어 또 파문

전국민적인 공분을 샀던 광주인화학교 장애학생 성폭행 사건에 이어 이번엔 특수학교 통학버스 운전기사가 지적장애학생을 상습 성폭행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파장이 일고 있다.

경찰은 고소인 조사가 끝나면 다음 주 피고소인에 대해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광주지방경찰청은 20일 "광주의 S 특수학교에 다니는 지적장애 3급의 A양(19)이 통학버스 운전기사인 B씨로부터 수개월간 4~5차례의 성폭행을 당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 고소장에 따르면 B씨는 일반인에 비해 지능이 떨어지는 A양에게 통학버스 승차 시간 등 편의를 봐주겠다고 하며 자신의 전화번호를 알려줬으며, 지난 7월28일 오후 A양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오자 광주시 서구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했다.

이후에도 지난달 초까지 성폭행이 반복됐다는 것이 A양의 주장이다. 이 같은 사실을 눈치챈 A양 가족, 지인들이 A양의 이야기를 들은 뒤 최근 B씨를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학교 측은 통학버스 운영업체에 통보, B씨를 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양이 지적장애 3급이지만 정상인에 비해 약한 지능이 떨어

진 수준으로, 진술능력을 갖춘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장애학생의 진술이 일관돼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며, 다음주 B씨를 불러 사실관계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아르바이트생 성폭행 20대 업주 검거

광주북부경찰은 20일 자신의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여성을 성폭행 한 김모(28)씨를 강간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김씨는 이날 오전 7시께 광주시 북구 중흥동 한 고시텔 방 안에서 A(21)씨가 술에 취해 잠든 사이 손과 발을

뒤 성폭행 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일을 끝마친 A씨에게 '친구들과 술 한 잔 하자'며 만나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뒤 성폭행 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일을 끝마친 A씨에게 '친구들과 술 한 잔 하자'며 만나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5·18은 공산 혁명' 책자 배포 "박홍우 법원장 사퇴하라"

### 5월 단체 촉구

5월 단체들이 5·18 민주화운동을 폄하하는 책자를 배포한 박홍우 서울 행정법원장의 사퇴와 정부의 진상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5·18 기념재단과 5·18 민주유공자유족회, 5·18 민주화운동부상자회는 20일 성명을 내고 "박홍우 법원장이 의정부지방법원장 재직 당시 2차례에 걸쳐 5·18 민주화운동을 '공산주의 혁명'으로 왜곡하고 폄하하는 책자를 판사들에게 배포했다"며 사퇴를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그동안 국회 국정조사, 검찰 수사, 대법원 판결 등을 통해 5·18 가해자의 범죄가 최종 확정됐음에도 사법부 요직에 있는 법원장이 판결을 무시하고 민주화 운동의 업언 한 역사를 부인한 것은 공적자로서

부적격하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법원장이 관련 학계의 검증도 거치지 않고 5·18의 명예를 훼손한 책자를 배포한 것은 부상 후유증 및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관련 피해자들을 두 번 죽이는 시대착오적이며 반인륜적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법원장이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출판사가 책을 보내고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채 두 차례나 판사들에게 해당 책을 배포했다는 변명은 공책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박 법원장은 지난해 10월과 지난 3월, 각각 '5·18 특별법'이 위한 요소가 있으며 공산주의를 위한 혁명이라는 내용이 담긴 '5·18과 현재사망론', '헌법과국세력'이라는 책을 판사들에게 배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나원침 (8653) 김장두



## 고급 자전거 흠친 10대 입건

광주 북부경찰은 20일 고가의 산악용 자전거를 상습적으로 흠친 중학교 3학년 이모(15)군과 일본산 명품 자전거를 흠친 고등학교 1학년 서모(16)군을 각각 절도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군은 12일 저녁 7시30분께 광주시 서구 쌍촌동 한 아파트 입구에 세워진 100만원 상당의 자전거를, 서군은 지난 6월24일 낮 12시께 광주시 북구 용봉동 전남대학교 정문에서 200만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흠친 혐의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무시한다" 내연녀 주먹질 한 조폭

조폭조직 행동대원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내연녀에게 주먹질 한 것도 모자라 흥기까지 휘둘러 결국 경찰서행.

○20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광주지역 조폭조직원인 이모(50)씨는 지난 5일 새벽 3시30분께 광주시 서구 치평동 한 주점에서 내연녀 A(여·52)씨를 폭행해 상해를 입히고 흥기로 위협했다는 것.

○이씨는 A씨가 겁을 먹고 도망치자 술기운에 A씨의 고급 승용차를 흠친 뒤 집에서 경찰에 체포.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 사랑의 송편빚기

할 송편을 빚고 있다.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봉사원들이 20일 광주시 북구 임동 광주적십자사 봉사관 강당에서 독거노인 및 조손가정, 새터민, 다문화 가정 등 2000가구에 전달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여수해경 직원 "경찰 조사 억울" 자살

경찰에 체포돼 입건된 해경직원이 억울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투신자살해 파문이 일고있다.

20일 순천경찰과 여수해경에 따르면 여수해경에 근무하는 박모(57)경위가 지난 19일 새벽 5시 30분께 자신의 집인 순천시 모아파트 앞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박 경위가 8층 자신의 아파

트에서 투신자살한 것으로 보고있다. 박 경위는 "억울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다. 박 경위는 일행 1명과 함께 지난 18일 밤 12시께 도로에서 행인 이 시끄럽게 한다고 경찰에 신고했으나 출동한 파출소 직원들과 언쟁을 벌이다 현장에서 수갑이 채워져 연행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순천경찰서 관계자는 "박 경위가

술에 취한 채 출동한 경찰에 욕설을 하고 순찰차를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려 모욕죄로 수갑을 채워 분서로 연행, 입건한 뒤 새벽 4시 40분경에 귀가 시켰다"며 "이와 관련 다음날 해경의 감찰도 받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 재소자가 교도관 폭행 진실공방

### 동료 교도관 증인 채택 재소자는 "때린 적 없다"

광주교도소 교도관들이 재소자의 동료 교도관 폭행 사실을 증언하기 위해 법정에서 진정이다. 교도소 내 교도관을 상대로 한 재소자의 폭력 행사는 매년 1~2차례 있었지만 동료 교도관의 폭행사실을 증언하기 위해 동료 교도관들이 법정에서 서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20일 광주지법과 광주교도소 등에 따르면 광주교도소는 교도관 A씨가 지난 5월11일 오전 7시45분부터 15분간 교도소 내에서 복역

중인 B씨에게 폭행을 당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며 B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송치, 지난 6일부터 재판이 진행중이다.

이 교도관은 물론 맞은 상처 부위를 찍은 사진과 진단서를 법원에 제출했으나 B씨는 폭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열린 2차 공판에서 재판부인 형사6단독 허양운 관사는 검찰이 A씨가 폭행당한 사실을 목격하고 사진을 찍은 교도관 4명에 대한 검찰의 증인시청을 받아들였다.

또 B씨가 증거로 신청한 교도소 내 CCTV에 대해서도 사실조회 후

증거로 채택할 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성범죄를 저질러 복역중인 B씨는 이날 법정에서 "교도관을 때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할 수도 없다"며 폭행 사실을 강하게 부인했다.

광주교도소 관계자는 "B씨가 교도관에 대해 폭력을 행사한 것은 물론 이를 부인해 어쩔 수 없이 교도관들이 증언하게 됐다"고 말했다.

3차 공판은 다음달 18일 오후 3시30분 광주지법 404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연합뉴스 chadodol@kwangju.co.kr

## 재소자 서신 함부로 검열 못한다

### 봉합 허용하고 검열시 통보

앞으로는 수령자가 외부로 서신을 보낼 때 원칙적으로 '봉합' 상태인 편지봉투를 교도관에게 제출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봉투를 열어 둔 채로 편지를 내는 게 원칙이었다. 따라서

교도관이 임의로 서신검열을 해 재소자의 기본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예외적으로 내용을 검열할 때는 수령자에게 이를 즉시 통보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

률 시행령 및 규칙'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헌법재판소는 마산 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신모씨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청원하려고 봉합 상태로 편지를 제출했다가 거절당하자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연합뉴스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국내개발 | 국내생산 | 특허 제 10-1171252호

www.soriq.co.kr

NEW soriQ 소리큐 음성증폭기 S20

국산 소리큐 음성증폭기 S20

✓TV시청할 때  
 ✓노인성 난청  
 ✓소음성 난청  
 ✓강의들을 때  
 ✓핸드폰 통화할 때  
 ✓대화 · 상담할 때

2012 광주 국제 실버박람회 참가전시  
·기간: 10. 18(목)~10. 20(토) ·장소: 김대중 컨벤션 센터

소리큐 홍보대사 송해선생님

엠비온 광주 호남지사 | 010-3645-4151, 062)942-9822

9월 22일 토요일 OPEN

충장로 1가 입구 안산빌딩 8F

6기버하우스 barbecue restaurant

즉석바베큐 & 다양한샐러드바

환영합니다

웨버하우스는 즉석 바베큐와 다양한 샐러드를 부담없는 가격으로 마음껏 즐길수 있으며 사랑하는 연인과 가족, 친구와 함께 행복을 나눌수 있는 공간입니다.

● 평일점심 ₩14,900  
 ● 평일 저녁, 주말, 공휴일 ₩18,900  
 ● 미취학아동 ₩6,000  
 ● 초등학생 ₩9,900  
 ● 영업시간 : AM 11시 ~ PM 11시

예약문의 226-0003

■ 주차안내 : ● 승용차 이용시-건물 지하주차장 이용(안산 1주차장)  
 ● 승합차 이용시-안산 2주차장 이용(안산 1주차장에서 30m에 떨어져 있음)